

通通 튀는 장터 청년들 “함께 키워요, 상생시장”

전통



지난 23일 1913송정역시장 내 입점한 청년상인 대표들이 시장 입구에서 새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힘껏 뛰어오르고 있다. 왼쪽부터 선지혜, 박강근, 정화숙, 황연, 김진호, 이한샘 대표.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대



〈1913송정역시장 상인회 제공〉

청년이 미래다

〈5〉 1913송정역시장 청년상인들

‘시장활성화 1년’ 17개 청년 점포
“성장 발판 마련했으니 자생할 것”
상인회와 호흡하며 제2도약 준비

지난 23일 지역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 넣은 청년상인들 만나기 위해 찾은 ‘1913송정역시장’에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온기가 묻어나는 듯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몇몇 가게가 휴무인 관계로 입주(17개) 청년상인 중 6명만이 취재 자리에 나왔지만 청년의 열정 때문인지 분위기는 금세 뜨거워졌다.

“기대감이었죠.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서 시장이 아주 활력 넘치게 변했거든요.”

정화숙(37) ‘썩초코파이’ 대표가 1년 전 처음 입점했을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꺼냈다.

많은 매체에 소개되며 스타부터 잡지까지 많은 청년들이 “1년만에 낸 성과에 스스로 기특하고 자부심이 있지만 이제 실속이 문제라고 본다”며 “이 변화를 이어가고 더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또 기존 상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마케팅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한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1913송정역시장이 지금의 성공한 전통시장으로 유명세를 타기까지는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장업체 활기를 불어넣은 것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카드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록 지원한 점이 컸다. 청년들의 온전한 힘 보다는 주변의 도움과 시대변화에 따른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창업 1년을 갓 넘긴 1913송정역시장 청년상인들의 고민과 도전은 현재로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상인 중 제일 먼저 오픈했다는 ‘고로계삼촌’의 황연(36) 대표는 “젊은 상인이 운영하는 가게인만큼 맛 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과 포장에서도 신선함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주문만 하면 전국 어디든 배달하는 유통망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과 정, 지키기 위한 변화’라는 사업 취지가 좋아 시장에 입점했다는 양경 가게 ‘깡소녀’의 선지혜(29) 대표 역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기 위해 판매제품을 다양화하고 전문점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이 곳 전통시장에 외아만 맛볼 수 있는 시장 내 독특한 먹거리 상품이라는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수제맥주집 ‘밀밭양조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한샘(27) 대표도 “우리 전통시장의 역사와 맛, 고품격스러움을 지켜나가고 싶어 시작한 작은 일이었지만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제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외식업 콘셉트를 개발

해 사업을 키울 생각”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1913송정역시장에 입점한 청년상인들은 이제 각 기관의 지원이 끝났고 관심도도 점차 약화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스스로 성장하고 기존 상인들과도 빠르게 흡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청년상인을 대표해 상인회 감사를 하고 있다는 수제맥주 가게 ‘어?목!’의 김진호(35) 대표는 “청년상인이 시장을 이끌어갈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것만 맞지만 전통시장 상인의 일부러는 건 엄연한 사실인 만큼 시장 발전을 위해선 시장 상인회와 호흡이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확 대박 계란밥’을 운영하는 박강근(30) 대표 역시 “일반상권이 아닌 전통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상인들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상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입대부터 문제부터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까지 소소한 부분을 상인 여러분들과 의논하고 조언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 총무를 맡고 있다는 썩초코파이 정 대표는 “시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젠트리피케이션(입대료가 오르면서 원래 주인이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따라 투자와 전매를 내지 못하는 가게가 생기고 있다”며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하지만 상인회와 건물주간의 확실한 협약을 통해 계속성을 확보해주고 미래비전이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취재가 시작되고 1시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면 할 수록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청년상인들의 차고 넘치는 열정과 패기가 올해도 전통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오기에 충분할 것 같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활기 되찾은 전통시장

전국구 관광지 ‘우뚝’

1913 송정역시장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위치한 송정역시장은 대표적인 지역 전통시장이다. 지난 1913년부터 운영돼 100년을 넘긴 역사 깊은 곳이지만 한 때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활기를 잃었던 시장이 변화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정부 지원을 받은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장업체 나서면서부터다. 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젊은 상인들이 유입,

‘1913송정역시장’으로 거듭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청년 상인들이 유입되면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독특한 음식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야채를 삼겹살에 얹은 찜은 두루두루 회자되고 있으며 크로켓, 달걀밥, 양경 등 특색 있는 음식들이 방상에 소개되기도 했다.

변신 후의 1913송정역시장의 특징은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건물은 기존의 오래된 건물이지만 상점의 인테리어와 간판 등은 세련미를 갖췄다. 새로 생긴 상점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점도 최소한 상품진열 방식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전통성과 새로움을 함께 취하는 모습을 전한다. 길도 넓은 편이라 시장 특유의 뻥뻥한 분위기가대신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그 결과 하루 평균 200명에 불과했던 방문객은 재개발 덕담 만에 4000여명으로 늘더니 현재는 5000여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상인 매출도 5배 가까이 경증 뛰었다.

최근엔 지역 전통시장을 넘어 전국구 관광지로 이름을 얻고 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도 가게 구경을 하면서 기존 전통시장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

1913송정역시장은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등의 발달로 점차 일로를 걷고 있는 전통시장의 대안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함께 하는 시장으로서 한때의 인기가 아닌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